

제2회 골드클래스 미드아마 챔피언십 성료

미드아마 남성부 강봉석 선수 합계 138타 우승



이번대회를 주최한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과 광주시골프협회 한창희 회장, 한국미드아마골프연맹 오기만 회장 등이 입상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골드클래스(주) 박철홍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우승자에게 상금패를 수여하고 있다.

전국 아마추어 골프선수들이 대거 출전한 ‘제2회 골드클래스 미드아마 챔피언십’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화순CC에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폐막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의 대표적인 향토 기업인 골드클래스(주)(회장 박철홍)가 주최하고 광주시골프협회(GGA 회장 한창희),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KMAGF 회장 오기중)이 함께했다.

박철홍 골드클래스 회장은 “골드클래스 미드아마 챔피언십 대회를 우리 고장 화순CC에서 성대하게 치르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대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골프 동호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특히 광주시골프협회와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관계자들이 경기와 진행을 도와 대회를 잘 치렀다. 골프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실수하느냐에 따라서 우승이 판가름 난다. 또 골프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사업도 집중력을 가지고 훌륭하게 이뤄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미드아마 남성부 강봉석 선수가 합계 138타(70,68)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황대석 선수가 140타(68,72)로 준우승을 차지

했다. 이주승 선수는 142타(73,69)로 3위를, 조백균 선수는 142타(70,72)로 4위, 이승훈 선수는 143타(72,71)로 5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총 128명의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36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펼쳐졌다.

이날 우승자에게는 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과 트로피가 주어졌고, 준우승부터 10위까지 20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교환권을 시상했다. 또 파우치, 삼성청소기, 제

습기 등 다양한 경품 추첨이 이어져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한창희 광주시골프협회장은 “자연과 더불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골프 문화는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회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실력 향상

의 기회가 될 것이다.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돼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회가 되도록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우승을 차지한 강봉석 선수는 “김천 혁신도시에서 사는데 집 가까이에 명

품아파트인 골드클래스가 들어서 평소 인상 깊었다. 게다가 골드클래스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서 우승까지 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또 대회참가자들은 “이번 대회가 아마추어 골퍼들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골프대회를 마련해 준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전통있는 대회가 되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회 골드클래스 미드아마 챔피언십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미드아마추어골프연맹 홈페이지(<http://www.kmagf.c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골드클래스(주)는 주거환경을 개선, 낙후된 지역을 재활성화, 도시개발을 지향하며 이웃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업이다. 이번 골프대회를 개최한 것을 기회로 아마추어 골프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방면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서미애 기자



관련 동영상은 홈페이지(www.jndn.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남·경북, 영천에서 형제의 정 나눈다

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참가 생활체육 교류

전라남도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생활체육을 통한 우호 교류에 나섰다. 지난 2015년 이후 네번째 교류다.

전남체육회는 20일 경북체육회 초청으로 영천을 방문, 고려말 충신 정몽주 선생의 위패를 모신 임고서원에서 환영식과 문화탐방을 갖고 생활체육 교류의 밤 행사에 참석했다.

전남체육회 우호교류단은 김홍식 상임부회장을 단장으로 5개 종목(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정구, 탁구) 70명으로 구성됐다. 교류단은 21~22일 경북 영천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 경북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 각 종목별로 경북 생활체육 동호인들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전남체육회는 올 하반기 열리는 제13

회 전라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에 경상북도 생활체육 동호인 70명을 초청, 교류를 펼칠 예정이다.

전남·경북간 생활체육 우호교류는 양도간의 상호 생활체육 체험과 우수 시책 벤치마킹을 위해 2015년 처음 시작됐으며 매년 경북 생활체육 동호인들을 초청해 친선경기과 문화탐방을 하고 있다.

김홍식 전남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전남·경북, 경북-전남간의 4회째 교류를 통해 동호인들간의 만남이 더욱 돈독해진 형제로 발전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양도민이 특별하게 간직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 등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교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어버이날 라면 고마웠어요”

선운초 학생들 선행에 선운휴먼시아경로당 화답

광주 광산구 어룡동 선운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 이하건 회장은 지난 19일 선운초등학교 교장실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회장이 전달한 감사패의 주인공은 선운초등학교 학생들이다.

지난해 12월 선운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엄준용군은 ‘개교기념일에 학생들이 직접 마련한 라면을 마을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드리자’는 내용의 ‘라면 사랑데이’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회장에 당선된 엄군은 공약을 실천했다. 어버이날을 앞둔 4월 30일 학생들이 하나둘 모은 라면 240개를 선운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에 전달했다. 학생들의 라면전달 소식을 접한 어룡동 주민센터는 후원받은 카네이션 30송이를 더해 학생들의 기부를 응원했다.

경로당 이하건 회장은 이날 엄군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훈훈하고 정감 있는 마음으로 건넨 깜짝 선행을 기억한다는 문구를 이 패에 담았다”며 “경로당을 찾아준 아이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에게 배려와 나눔의 마음을 심어준 선생님들에게도 깊이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인사

CBS ◇ 승진 ▲전남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이석범 ◇전보 ▲광주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조기선

본사손님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대병원 정명호 교수, 심근경색증 연구 최고 수준 입증

SCI 논문 200편 돌파...세계적 연구팀 보다 월등



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근경색증 등록 연구 사업인 GRACE(SCI 논문 147편), SCAAR(SCI 논문 57편) 등 보다 월등히 높은 연구실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정명호 교수를 비롯한 모든 연구원들의 심근경색증 치료 연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연구원간의 끈끈한 팀웍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KAMIR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라 심근경색증 환자는 서양인과 달리 저밀도 콜레스테롤(평균 115mg/dL)은 높지 않고, 환자의 60%가 중성지방이 높거나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아 이상지질혈증의 형태가 서양인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prasugrel’ 또는 ‘ticagrelor’를 사용하면 서양인과 다르게 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환자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는 ‘KAMIR score’도 개발해 미국심장학회지에 보고된 바 있다.

지난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KAMIR은 2013년 대한심장학회 산하 심근경색증 연구회를 정식 발족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예방 및 치료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해 왔다. 2016년에는 심근경색증 교과서를 출판했으며, 현재는 급성 심근경색증의 치료지침인 ‘Korea AMI guideline’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한국의 체계적이고 놀라운 연구 성과에 대해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협력연구를 제안했다.

일본은 2013년 오사카 국립순환기센터 주축의 JAMIR 연구팀을 결성해 한국과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KAMIR-JAMIR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중국은 길림대 류빈 교수팀의 협조 요청으로 KAMIR-CHAMIR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있다.

정명호 교수는 “앞으로 KAMIR의 연구성과는 한국인 심근경색증 환자의 예방·치료 및 재활방법 개발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적으로 대한심장학회 및 전남대병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미지의 해양탐험’ 개막식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은 20일 해양특발전 ‘미지의 해양탐험-Under the Sea’의 개막행사를 진행했다. 전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광주·전남기자협회-아시아문화원 ‘정책포럼’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김효성)와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민간 중심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20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B4 강의실2에서 공동 개최했다.



국립광주과학관-남서울대 업무협약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19일 남서울대학교(총장 공정자) 4차산업혁신 추진단과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펼쳐가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신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학·연 협력 MOU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최근 대학 중앙도서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